

고용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정년연장! 간부 교육시간 확보!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 내 식당 개선! 기본급 123,526원 인상!



지부교섭 속보 **1호**

2019.04.18(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노동법 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자 건강권 쟁취! **2019년 투쟁 선포했다!**

2019년 투쟁 선포!

지부가 18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투쟁을 선포했다. 지부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 저지 4~5월 총파업 투쟁, 복수노조 사업장과 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투쟁,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노조법 개악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은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린다. 지금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투쟁에 지부가 나선다. 임단투와 더불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쟁취하는 투쟁으로 만들 계획이다.

총파업 투쟁 방해하지 마라!

투쟁선포 기자회견 이후 15시부터 지부교섭 상견례가 시작됐다. 김정태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법이 개악되면 사용자들도 노조과괴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쌓아온 노사관계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법 개악을 막고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지지는 못해도,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요구안은 경기 침체를 고려

한 고용안정 요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책 요구를 담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교섭하자는 희망을 전했다.

<교섭원칙>

1. 교섭장소 : 각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개최
(한온-보쉬-대한이연-JCC-코스모링크-KDK)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5시 실시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6인 이상 참석 (각 사별 1명 이상)
 - 간사 : 노(성세경 사무국장), 사(보쉬 유선용 이사)
 - 사회 : 노(보쉬지회 유육종 노안부장), 사(회사별)
 - 서기 : 노(임성우 교섭부장), 사(보쉬 이영철 팀장)

지역의제 함께 쟁취한다!

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임단투와 지역의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작년에 요구했던 노동자 건강권 7가지 지역의제가 대전노동청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올해는 지부 중심으로 지역의제 투쟁을 벌여 지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쟁취할 것이다. 사업장 임단협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2019년 투쟁을 힘차게 시작하자!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노사간 신뢰, 노사관계 균형의 토대 만들자

사 : 반갑다.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인데 꽃, 잔디가 제 조업에 맞지 않게 상당히 잘 돼 있다. 철에 따라 꽃이 피는데 요즘은 한꺼번에 피는 것 같다. 기후만큼이나 자동차 업종 환경에 변화가 많다. 우리가 어렵다고 할 수만은 없고, 다른 회사도 어려움과 노력을 하고 있다. 지부 요구안 내용을 보니 쉽지만은 않다. 지부에서 해왔던 선례도 있으니 서로 맞춰 노력하면 큰 어려움없이 끝날거라 생각한다.

노 : 벌써 1년이다. 매년 봐도 상견례만 오면 조금 긴장된다. 지부장 4년째인데 올해 유독 힘들 것 같다. 4년 하면서 대전충북지역 사용자 보면, 사업장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원만하게 끌어간다. 대체적으로 서로 힘의 균형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노사문제를 잘 끌고 가는 사업장이 많다. 근데 노사가 원만히 해결하려는데 국회에서 올해 또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려고 한다. 노동개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신뢰로 쌓은 노사관계가 그 법 개악으로 사용자들이 노조과파 유혹에 빠질까봐 우려된다. 그래서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4~5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사용자와 그동안 해온 노사관계, 노사간 신뢰의 문제다. 그 법이 개악되면 사용자들도 유혹될 수밖에 없다. 그걸 막고자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지역 사용자에게 부탁한다. 우리 총파업 지지는 못할 것 아닌가? 그럼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 좋겠다. 올해 요구안에 경기침체 상황 관련된 것이 있다. 경기가 어렵고 침체될 때마다 노동자에게 전가하던 관습이 있다. 올해도 우려돼서 집단교섭에 고용문제를 넣었다. 사용자가 올해 경기침체든 뭐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모든 노동자들 끌어안고 간다는 관례와 원칙을 생각하면 좋겠다. 또 고령화 되면서 노후 보장 문제도

생긴다. 그런 고민에서 지부 요구안이 구성됐다. 요구안은 전반적으로 우리 노동자가 처해있는 환경에서 나온 문제다. 올해 교섭도 사용자 측에서 조금만 관심 있게 하면 원만히 풀릴 거라 본다. 작년과 동일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되면 좋겠다. 교섭원칙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 않나?

사 :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온에서 주로 사측 간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회사별로 윤번제로 하기로 했다. 올해는 보쉬가 간사 맡는다. 그리고 교섭성원 관련해서 각사 1명 이상 임원 참석인데, 해외출장 등으로 참석이 어려우면 교섭을 성실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 팀장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조항을 검토해주면 좋겠다.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다.

노 : 여기 나온 분도 대표가 아니라 담당 임원이다. 담당 임원도 결정 못할 때가 많다. 팀장이 나오면 결정할 때 결정해야 하는데 못하게 된다. 노사공동위 할 때도 부장급이 나온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다. 그 분이 뭘 결정할 수 있나? 그냥 앉았다 가는 것 밖에 안된다. 그래서 최소한 담당 임원급을 요청한거다. 우려지점 고려해서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면 된다. 다만 2회 연속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 어렵다.

사 :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노 : 결정권은 분명히 가져와야 한다. 그 결정권은 담당 이사가 책임져야 한다.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악용하면 안되고 2회 연속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 사전에 지회장님 통해서 협조 구해라. 이 요건 충족해서 문구는 실무에서 정리하자.

사 : 그렇게 하자. 다음 주는 한 회사가 노사 함께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서 교섭이 어려울 듯 하다.

노 : 한주 연기해서 5월 2일에 하자.